

# 구례군 이색 정례조회, 직원들 반응 '엄지 척'

### 구례 출신 퓨전국악공연팀 낭창낭창 초청, 오프닝 공연 참여 직원들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며 문화공연 감상

구례군은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색적인 12월 직원 정례조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즐거워 한 달의 시작, 정례조회'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경직된 분위기를 탈피하고 부담 없이 참여하고 싶은 정례조회를 만들고자 참여 직원들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문화공연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프닝 공연행사는 '낭창낭창'팀의 퓨전국악 공연이 있었다. 낭창낭창은 김새아(판소리), 김지희(해금) 아담(기타) 3인조 퓨전국악밴드로 순수 구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버스킹 공연, 트롯 가요제,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날 공연은 판소리 5마당 중 하나인 수궁가의 일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범 내려온다' 등 참여 직원들의 뜨거운 반응 속에 약 30분간 수준 높은 공연이 이어졌다. 김순호 군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인 12월을 맞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라는 격려의 말과 함께 "이번 정례조회를 통해 구례 출신 공연팀을 소개하는 자리가 되어 더욱 뜻깊었으며 앞으로도 정례조회를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미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즐거운 자리로 탈바꿈 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례군은 내년에도 각종 공연행사와 더불어 유명 감사 초청, 각종 이벤트 운영으로 즐겁고



유익한 정례조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구례=박진호기자



솔매음 정원 전경



효산리 정원 전경

### 화순 솔매음 정원·효산리 정원 전라남도 19·20호 민간정원 등록

화순군 소재 '솔매음 정원'과 '효산리 정원'이 전라남도 민간정원에 등록됐다. 화순군은 이양면 소재 솔매음 정원과 도곡면 소재 효산리 정원이 전라남도 제19호·제20호 민간정원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솔매음 정원은 2만6320㎡ 규모로 생태식물원, 자생화원, 목련원 등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교목과 관목 1000여 종과 초화류 400여 종이 아름답게 배치된 정원으로 사시사철 다양한 꽃과 나무가 어우러져 있다. 효산리 정원은 노부부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7000㎡ 규모의 풍경화식 정원으로 목수국정원, 자작나무 숲 등을 주제로 정원이 구성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두 정원은 각각 2022년과 2020년 전라남도 예쁜 정원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과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화순=박순철기자



### 담양군, 육아용품 나눔장터 운영... 출산가정 부담 절감

9일 담양군 여성회관 3층 대강당에서 '출산 육아용품 나눔장터'를 운영한다. 육아용품 나눔장터는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 영유아 의류 및 도서 등 물품을 기증받아

소액으로 판매·교환하거나 무료로 나누는 행사로 출산가정의 불필요한 육아 비용을 줄이고 자원재활용 문화를 확산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나눔장터 기증 물품 판매 금액은 출산장려 연합모금에 기부하여 다자녀가정 장학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등 출산장려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육아용품 나눔장터라는 이름으로 매년 정기 개최 하고 있다. 앞으로 나눔장터처럼 영유아 부모를 위한 다양한 소통·교류의 장을 마련하며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나주 죽림동 도시재생주민협 충남 공주·부여 선진지 견학 우수 사례 현장 벤치마킹, 주민 도시재생 역량 강화



나주시는 최근 죽림동 도시재생주민협의회 주민 22명과 1박 2일 일정으로 충남 공주시, 부여군 지역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을 가겠다고 3일 밝혔다. 주민들은 첫날 공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사업 추진 과정, 우수 사례 등을 접했다. 이어 '공주하숙마을', '근대문화유산 골목길', '제민천', '풀꽃문화관' 등을 방문했다. 또 맛집 명소인 '공주부자 떡집'을 찾아 제조설비, 판매현장을 둘러보고 죽림동 마을기업인 '속보당' 활성화 방안을 벤치마킹했다. 나주=송준표기자

충남 부여군에서 이뤄진 둘째 날 일정은 '공예마을 거리', '옛 규암극장', '부여청년창고'에서 담당자 안내를 통해 죽림동에 접목할 수 있는 도시재생 아이디어 창출에 머리를 맞췄다. 정을진 죽림동 도시재생주민협의회장은 "다 지역 도시재생 우수 사례를 현장에서 접해볼수록 죽림동 도시재생사업 참여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나주시 죽림동도시재생사업은 '현대화로 재조명한 역사문화 복원도시'를 주제로 '학생운동길 역사문화 거리 조성', '문화예술 소통창작소 및 게스트하우스', '근대역사기념관' 건립 등 총 15개 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내년 완료될 계획이며 5년 간 사업비 396억원(국비150·시비100·공기업146)이 투입된다.

###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크리스마스 리스&트리 만들기' 신청자 모집

#### '기차마을은 메리크리스마스' 메인 프로그램으로 운영

곡성군이 12월 1일부터 섬진강 기차마을 장미공원 내 공무도화에서 '크리스마스 리스 & 트리 만들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2월 달달 이벤트인 '기차마을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주말 원데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성인반은 토요일 오전 11시, 가족반은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로 편성됐으며 1회당 15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비는 한 팀당 2만원이다. 크리스마스 리스는 시즌이 지난 후에도 집안의 분위기를 살리는 소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기정화식물인 스칸디아모스로 만들어진다.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는 가드닝을 겸했다. '아라우카리아'라는 식물을 화분에 심는 것

부터 크리스마스 장식 달기까지 이뤄진다. 기차마을에서 추억도 만들고 오랫동안 함께할 반려식물로 키울 수도 있다. 참여 안내와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홈페이지와 섬진강기차마을 인스타그램(gstrainvillage\_official)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차마을 관계자는 연말을 맞아 '달달 이벤트'를 '제미난 거 옆에 재미난 거' 컨셉으로 특별하게 준비했다고 전했다. '크리스마스 리스 & 트리 만들기' 메인 프로그램 이외에 '동화책 읽고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마술 쇼와 풍선 쇼, SNS 선물 대잔치 등 한겨울 추위를 녹일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곡성=양해영기자

### 장성군, 시설하우스 사전 점검 농가 화재 제로(0)화 도전

장성군이 겨울철 농업시설물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하우스 점검에 나섰다. 겨울이 되면 작물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농가의 난방기 사용량이 급증한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사용하지 않던 전기시설을 다시 작동하면서 누전 등 각종 화재로 이어지곤 한다. 지난해에도 장성 내에서 5건의 비닐하우스 화재가 발생했다. 심각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난방 가동 전 철저한 시설 점검을 요한다. 장성군은 11월부터 현장기술지원단을 편성해 시설하우스 집중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6년간의 통계를 바탕으로 선정한 158개 농가를 직접 방문해 재해 위험도를 살피고 시설 관리 요령을 교육한다. 에너지 절감 기술 등 농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노하우도 전수한다. 장성=기동취재본부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